

전주시립예술단과 함께 세병호로 떠나는 밤마실 길



전주시립국악단

JEONJU KOREAN MUSIC ORCHESTRA

야夜 호湖 Concert

지휘 심상욱

전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노래
김민영



태평소
오남영



모듬북
강은진



모듬북
유인황



드럼
박종석

PROGRAM

1 전주의 새아침

작곡_강성오 대북_유인황 무용_전주시립무용부

동녘을 물들이며 붉은 해가 솟아 오른다. 어제와 다른 것은 일출이건만 함께 살아온 많은 이들의 얼굴이 그려지는 이 아침!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다짐 속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 국악관현악 "전주의 새아침"은 떠오르는 태양 속에 화합과 통합의 길 그리고 전주의 새아침이란 주제로 다가올 희망의 전주를 노래하고 있다.

2 한바탕 전주

작곡_강성오 노래_김민영

전주는 낯선 새로움과 통속적인 이야기가 혼재해 있어서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도시다. 전주하면 무엇보다 맛의 고장 아니던가. 전주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꼭 배를 비워가야 한다. 전주비빔밥! 생각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간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풍성한 손맛을 보려 천변길을 따라 한 벽고 아래까지 간다. 버드나무와 은행나무가 우거진 냇가에서 마술을 비벼 내는 식당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서 있다. 쳐다보고만 있어도 전주 인심이 느껴질 정도다. 이제 배도 부르고 진짜 전주 여행길에 올라보자! 한바탕 전주!

3 Fly Me to the Moon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바트 하워드(Bart Howard)가 1954년에 작곡 발표해 오랜 세월동안 사랑받고 다시 불려지고 있는 스탠다드 곡 중 하나이다. 원래 이 곡은 '다시 말해서(In Other Words)'라는 제목으로 알려졌으나 후에 첫 줄 가사인 'Fly Me to the Moon'으로 유명해졌으며, 음반사에서 공식적으로 이 제목을 사용하여 현재도 계속 이 명칭으로 불려지고 연주되고 있다.

4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 삽입곡 Children of Sanchez

태평소_오남영

이 곡은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할 바틀렛(Hal Bartlett) 감독이 1978년 영화화 한 <산체스의 아이들>에 삽입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곡이다. 원곡은 척 맨지오니의 트럼펫 연주곡이지만 오늘 공연에서는 국악관현악과 태평소 협연으로 연주된다.

5 타(打)

작곡_이경섭 모듬북_강은진 유인황 드럼_박종석

모듬북과 관현악의 협연곡으로 만들어진 이 곡은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와 관현악의 섬세한 선율이 어우러지는 곡으로 모듬북의 화려하고 힘있는 소리가 국악관현악과 함께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작곡되었던 곡이다.

전주시립극단

JEONJU THEATER COMPANY

맹진사댁 경사



연출 이종훈

전주시립극단 예술감독 겸 상임연출



◆ 줄거리

허영과 탐욕에 찬 맹진사는 무남독녀 갑분이를 세도가인 김판서댁 미언과 혼인시키기로 약속하고 우쭐댄다. 하지만 신랑 될 미언이 바보라는 말을 듣고 맹진사 댁은 발각 뒤집힌다. 궁리 끝에 맹진사는 여중 입분이를 갑분이로 꾸며 혼례를 치르려 한다. 하지만 신랑이 멀쩡하고 잘 생긴 장부임이 밝혀지자 맹진사 댁은 다시 소동이 벌어진다.

◆ 기획의도

국내희곡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희곡 <맹진사댁 경사>는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릴 만큼 그 작품성과 문학성을 이미 수많은 공연을 통해 인정받은 오영진의 대표적 시나리오다. 전주시립극단에서는 이 작품을 전주시립국악단의 신명나는 전통음악과 버무려서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맛깔스러운 음악극으로 재해석 하였다.

우리 전통음악과 연극이 어우러지는 이번 작품은 우리나라 양반사회의 멋과 전통혼례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아 낸다. 극의 구조와 형식 역시 쉽고 빠르게 전개되어 지루하지 않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작품으로 공연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출연진

고조영 국영숙 김명주 서유정 서형화 소중호 신유철 안대원 안세형 염정숙 이병욱 전춘근 정경림 정준모 최 군 홍자연 홍지예

제작진

원작_오영진 각색_최기우 연출_이종훈 총진행_정경선 기획_정성구 음향오피_서주희 조명감독_조승철 분장_강지영